

고용노동부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고령자에게 고용안정 조치(정년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근로시간단축 등)를 하는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사업주 지원	근로자 지원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 정년미설정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당 24만원 지원 ('20년 종료)	.(임금피크제)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18년 종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20년 신설)	.(장년근로시간단축)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32시간 이내로 단축하였을 때 감소된 임금의 1/2를 연간 1,080만원 한도 지원 ('19년 종료) * 사업주에는 연간 36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 예산 및 재원: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91,623	28,042	59,261 (93.2%)	53,592	△38,031	△41.5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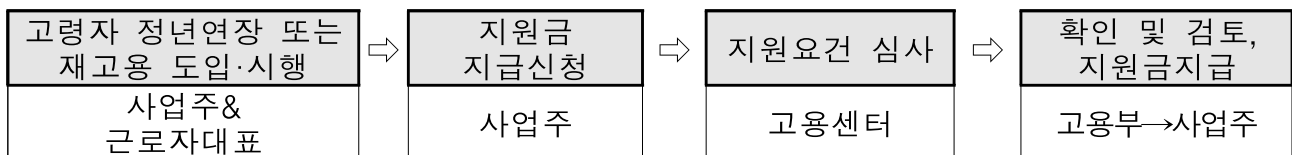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주요 지원대상

- 고령자 대상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 전달체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구 분	'20년	'21년	비고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일몰		'20.12.31 일몰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근로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540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02%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0.04%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66.0%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33.4%)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장년(94.9%)이 지원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1〉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안정형 전체	1,544,811 (100.0)	642,233 (41.6)	902,516 (58.4)	797,478 (51.6)	504,824 (32.7)	191,128 (12.4)	51,137 (3.3)
장년고용안정 지원금	580 (100.0)	386 (66.6)	194 (33.4)	0 (0.0)	1 (0.2)	550 (94.8)	29 (5.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를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310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1%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0.2%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5.8%)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3.9%)는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53.2%)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45.2%)과 건설업(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안정형 전체	188,202 (100.0)	186,963 (99.3)	546 (0.3)	27,975 (14.9)	3,117 (1.7)	155,680 (82.7)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310 (100.0)	297 (95.8)	12 (3.9)	140 (45.2)	4 (1.3)	165 (53.2)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 정량지표 산출 대상에서 제외("20년도 신규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20년도 신규사업)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본 사업은 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자 일자리 부족, 퇴직과 연금 수혜 연령의 괴리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중·고령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임
 -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관련된 사업으로, 정년을 시행중인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장기근속을 유인

- 고령자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사업주에게 고용부담을 완화해주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 기회 부여
- 상대적으로 고임금 베이비부머의 고용유지 부담 등 사업주의 기피 요인을 완화하여 베이비 부머의 대량 실업을 방지

□ 일자리 사업 성과

- '20년 신설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 사업계획과 성과목표(지원인원)에 비해 지원 사업장수 및 지원인원 실적이 저조하여, 중고령 퇴직예정자의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20년 지원 인원 실적 및 지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함
 - * 20년 최초 지원사업장 수 310개소, 최초 지원인원 580명
-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당 지원금의 신청자의 감소를 고려해도 신청 요건과 절차 등에서는 개선노력이 필요
 -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년 종료되면서 20년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 * 일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준고용률 초과근로자에게 분기당 24만원을 지급했으며, 당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운영의 적절성

- 사업계획과 성과목표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에 비해 실제 집행은 과소하게 운영
 - 사업계획과 성과지표를 중고령 노동시장에서 주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으로 설정하고 있어 당 사업의 규모와 괴리
- 코로나 사태와 제도 자체의 유인(지원 수준이 1인당 월 30만원)이 낮아 예산집행률이 15.6%에 불과
 - 유사 중복적 사업이 없음에도 당 장려금의 신청 요건상 사업장의 고령자 비율, 대상자의 선별 불가로 인해 사업주의 신청이 적어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 제도개선 노력

- 지방관서 및 사업주 단체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개선사항 발굴
 - 현장 수렴과정에서 장려금 요건의 엄격성, 낮은 지원 단가 상향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개선 추진중
 - * 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20.7 고시개정)
 - * 재정당국과 지원단가 상향 협의 추진(5월~)